

완벽했던 멧덴, 멘탈 싸움에 '흔들'



키움전 선발로 정규리그 데뷔...5회 2사까지 퍼펙트 피칭 세 타자에 공 23개 던지며 고전...5.2이닝 3피안타 3실점 힘·스피드 보여줬지만 세밀한 대처 부족... '결정구' 속제로

베일 벗은 멧덴(사진), KBO '맞춤형' 진화가 성공의 관건이다.

멧덴은 지난 6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시즌 1차전을 통해 KBO리그 데뷔전을 치렀다.

5회까지는 기존 우려를 탈어낼 수 있는 완벽투였다. 멧덴은 지난 3월 30일 시범경기 마지막 리허설에서 KT 타선에 못매를 맞았다. 강백호에게 두 개의 홈런을 맞는 등 KBO의 뜨거운 방망이를 경험했고, 4.2이닝 7피안타 2볼넷 1탈삼진 6실점의 성적표를 작성했다.

우려의 시선 속에 시작된 멧덴의 KBO리그 첫 무대. 멧덴은 앞선 등판과는 다른 힘과 스피드로 5회 2사까지 퍼펙트 행진을 펼쳤다.

이용규와 김혜성을 연속 삼진으로 잡아내는 등 삼자범퇴로 1회를 막은 멧덴이 2회에도 10개의 공을 가지고 3개의 아웃카운트를 채웠다.

3회와 4회에도 탈삼진 하나씩을 더해 삼자범퇴. 5회에는 박병호와 서건창을 연속 삼진으로 잡아내며 완벽투를 이어갔다.

이어 프레йти라스에게 중전안타를 맞으면서 멧덴의 퍼펙트 행진이 종료됐지만, 송우현에게 이날 경기의 7번째 탈삼진을 뽑아내면서 5번째 이닝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6회, 멧덴이 KBO리그 성공을 위한 또 다른 과제를 확인했다.

잘 던지던 멧덴은 6회 선두타자 김수환을 풀카운트 승부 끝에 우전안타로 내보냈다.

박동원과는 9구까지 가는 승부를 펼쳤다. 풀카운트 상황에서 박동원이 연달아 공 3개를 걸어낸 뒤 9구째 공이 스트라이크존을 벗어나면서 볼넷이 됐다.

무사 1·2루에서 멧덴이 이용규를 좌익수 플라이로 돌려세우기는 했지만, 이번에도 5개의 파울을 포함한 8구 진담 승부였다.

5회까지 투구수를 65개로 묶었던 멧덴은 세 타자와의 승부에서 23개의 공을 던지며 고전했다.

이어 김혜성의 타석 때 2루수 앞 땅볼로 선행주자를 잡아내면서 2사 1·3루.

그리고 이정후가 타석에 섰다. 1루주자 김혜성의 도루로 2사 2·3루, 이정후의 타구가 우익수 최원준의 키를 넘으면서 순식간에 2-2 동점이 됐다.

결국 96구에서 멧덴의 KBO리그 데뷔전이 마무리되고 마운드에는 박준표가 출격했다.

그리고 박준표가 볼넷과 우전안타로 멧덴이 남겨놓은 주자의 득점을 허용하면서, 멧덴의 KBO리그 첫 경기 기록은 5.2이닝 3피안타 1볼넷 7탈삼진 3실점이 됐다.

시범경기 마지막 등판에서 KBO리그 타자들의



힘을 확인한 멧덴은 첫 본무대에서는 '세밀함'이라는 또 다른 벽을 만났다.

멧덴의 완벽투에 막혀있던 키움 타자들은 잇달아 공을 걸어내며 힘을 냈다.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순식간에 분위기를 바꾸며 멧덴을 일찍 마운드에서 끌어내렸다.

새로운 리그에 도전하는 멧덴이 브룩스와 확실한 '원투펀치'로 활약하기 위해서는 세밀함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힘과 스피드를 더한 멧덴이 두 번째 등판에서는 세밀함에 맞설 결정구를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선수들 매력 속으로 ~

온택트 팬북 발간 ... 선수 장기자랑 영상·사진·인터뷰 등 수록

KIA 타이거즈가 2021시즌 팬북을 발간했다. 올 시즌에는 '건강하게, 팬과 함께'라는 컨셉으로 '온택트(On-tact·온라인대면) 팬북'을 구현했다.

KIA는 팬과 새롭게 소통하기 위해 모든 선수의 프로필 사진과 함께 '시크릿 영상'을 제작했다.

스마트폰으로 팬북에 수록된 선수별 QR코드를 찍으면 장기자랑, 팬에게 쓰는 편지, 응원이 부르기, 세리머니 공약 영상 등 선수들의 색다른 매력을 볼 수 있다.



팬북 표지는 새로운 KIA타이거즈 로고를 적용한 심플한 디자인으로 균형과 상승, 리듬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팬북에는 화보와 함께 다양한 주제의 인터뷰가 실렸다.

지난 시즌 결산과 올 시즌 전망이 담겨있으며 윌리엄스 감독의 출사표, 지도자 길에 들어선 이범호 퓨처스 총괄코치의 선수 육성 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돋보이는 활약을 선보인 최원준과 정해영 등 '떠오르는 스타'들의 인터뷰는 물론 지난 시즌 이적을 통해 '호랑이'로 거듭난 류지혁, 장현식, 김태진의 올 시즌 각오도 담겼다.

또 외국인 선수 애런 브룩스, 다니엘 멧덴, 프레스턴 터커가 팬북을 통해 팬들에게 인사를 전한다.

새 디자인의 CI와 유니폼 소개란도 구성됐고, KIA타이거즈 응원단 화보도 실렸다.

팬북은 8일부터 케이엔코리아 타이거즈 온라인숍에서 1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내 타이거즈숍에서도 판매가 이뤄진다. 팬북 구매와 관련한 문의는 케이엔코리아(02-2265-0794)로 하면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광현 등판 임박

STL 시뮬레이션서 최종 점검 5이닝 68구 ... 2피안타 삼진 6개



김광현(33·세인트루이스카디널스·사진)이 두 번째 시뮬레이션 게임도 무난하게 소화했다.

세인트루이스 구단이 예고한 대로 '4월 중순 등판'이 유력해 보인다.

허리 통증 탓에 부상자 명단(IL)에 오른 채 정규시즌 개막을 맞은 김광현은 7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주피터에서 열린 시뮬레이션 게임에 등판해 최종 점검을 했다.

폭스 계열 벨리스포츠 미드웨스트의 짐 헤이스는 자신의 트위터에 김광현의 시뮬레이션 등판 결과를 전했다.

김광현은 5이닝 동안 공 68개를 던졌고, 2안타와 볼넷 1개를 허용하는 동안 삼진 6개를 잡았다.

헤이스는 "김광현의 직구 구속은 시속 87~90마일(시속 140~145km)을 오갔다"고 밝혔다.

김광현은 메이저리그가 개막한 2일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공 51개를 던졌고, 삼진 9개를 잡았다.

4일 휴식 후 다시 시뮬레이션 게임을 치르는 '선발 투수 일정'을 소화한 김광현은 투구 수를 68개까지 늘렸다. 실전 등판도 가능한 수준이다.

김광현은 지난달 14일 시범경기 세 번째 등판을 앞두고 볼넷 투구를 소화하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껴 투구 훈련을 잠시 멈췄다.

2주 동안 다시 속도를 낸 김광현은 3월 28일 시범경기에 등판했다. 그러나 김광현을 '선발 투수'로 못 박은 세인트루이스 구단은 김광현에게 '선발 등판'을 준비할 시간을 주기로 했다.

김광현은 열흘짜리 부상자 명단에 오른 채 정규시즌 개막을 맞았고, 세인트루이스 스프링캠프 훈련장이 있는 주피터에 남아 두 차례 시뮬레이션 투구를 했다. 점검은 거의 끝났다.

세인트루이스는 9~15일 밀워키 브루어스, 워싱턴 내셔널스와 홈 6경기를 펼친다. 김광현은 이 기간에 선발 등판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미컬슨의 '물수제비' 필 미컬슨이 6일(현지 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 16번 홀에서 '물수제비 샷'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이날 마스터스 대회 개막을 앞두고 열린 연습 라운드에서 이 샷을 선보였다. 물수제비 샷은 공을 연못 수면 위로 튕겨 그린에 올리는 기술이다. /연합뉴스

명인들 시험대 세운 '마스터스'

유리알 그린에 날씨 영향 샷 난도 높아져 승부 변수



8일(한국시간) 개막하는 '명인 열전' 제85회 마스터스 토너먼트가 올해는 더 빨라진 그린 스피드로 선수들을 곤혹스럽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마스터스는 그린 스피드가 워낙 빨라 '유리알 그린'이라는 별칭으로도 유명하다.

가뜩이나 어려운 그린이지만 올해 대회는 최근 날씨의 영향으로 난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게 연습 라운드를 진행 중인 선수들의 의견이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7일 "최근 쌀쌀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데다 바람까지 많이 불어 그린 상태가 매우 딱딱해져 있다"며 "선수들에게 가혹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인터넷 홈페이지 역

시 애덤 스콧(호주)의 2007년 마스터스의 기억을 전하며 이번 대회 그린 위 플레이가 승부에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3년 마스터스 챔피언 스콧은 "2007년 대회 당시 16번 홀 그린에 물을 조금 부었는데 땅으로 조금도 스며들지 않고 그대로 흘러내려 갔다"며 "올해도 그때와 비슷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2007년 대회는 잭 존슨(미국)이 1오버파 289타로 우승했다. 대회 역사상 오버파 우승은 1954년 샘 스니드, 1956년 잭 버크 주니어와 2007년 존슨 등 세 번 밖에 나오지 않은 기록이다. 1992년 '그린 제왕'의 주인공이 된 프레드 커플스(미국) 역시 ESPN과 인터뷰에서 "계속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 코스 난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며 "사실 여

는 정도의 난도는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ESPN은 "2, 3라운드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예보됐지만 지역적 특성상 날씨 예보가 자주 변한다"며 "일 최고 기온이 섭씨 26도 정도로 예상돼 그린에 더 딱딱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 때문에 대회 사상 최초로 11월에 열린 지난해 마스터스에서는 더스틴 존슨(미국)이 역대 최다 언더파인 20언더파로 우승했다. 또 임성재(23)와 함께 공동 2위를 차지한 캐머런 스미스(호주)는 대회 사상 최초로 나흘 연속 60대 타수를 쳤다.

ESPN은 "지난해 대회는 1라운드부터 비 때문에 3시간 이상 지연됐고 이후 코스는 계속 습기가 있는 상태였다"며 "이런 코스 컨디션이 역대 최다 언더파 우승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